

## **August 1996**

### **Ri Sang-jo Biography**

#### **Citation:**

"Ri Sang-jo Biography", August 1996,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Section, Asian Reading Room, Library of Congress.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394>

#### **Summary:**

Ri Sang-jo (Yi Sang Jo) was a central figure in promoting changes to the North Korean post-war development strategy. After meeting with Soviet officials in Moscow to encourage Soviet intervention in North Korean policies in 1956, Ri was removed from his post.

#### **Original Language:**

Korean

#### **Contents:**

Original Scan

## 특명정권대사 리상조 장군

리상조 선생은 1916년 3월 4일에 부산  
시에서 얼마더러진 동네에서 탄생하시였다. 리선  
생이 탄생하신 가정은 당시 재산수준으로 보아 중등  
수준에 있었으나 밭도 몇마직 있고 산간 허전에 기와  
집도 있어 현재에도 그분의 고향에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소유지가 있다고 한다. 리선생의 누이동생은 현재 서울  
시에서 자기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리선생과 종종  
편지 연락도 있고 리선생하고 몇번 만나 보기도 하였다.

선생은 7살때부터 향촌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벌써  
17세 되는데에는 부산시 삼공전문학교에서 공부하였다고 한다.  
동네시에 살다가 부산시에 나와 전문학교 학생이 되므로  
부산시는 아주 복잡하고 번잡해서 보는것도 듣는것도 많아서 리  
선생의 식견은 급격히 발전되려 그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다.  
그 당시 조선은 강점된지 20여년이 넘었고, 왜놈들은 매일  
같이 부유해가며 조선<sup>인</sup>들에 대한 민족적 착취도 배가 되며 험악고  
금주된 백이종포들이 폭노어 우는 어머니, 어린 아이들을 데리  
부인들이 폭놓아 우는것을 보면서도 연락선물하고 어딘가  
가는것은 매일같이 승원단 앞스나 무거운 짐장들을 들  
고 도라오는것은 한번도 못냈다. 때문에 어 모든 불행의  
기분 원인은 왜놈들에게 조국을 빼앗긴것이라하는것을 젊은  
청년들은 전심적으로 알게되었으므로 리선생도 어청년들중  
에서 백번 죽는것이 없더라도 자기 조국을 왜놈들에게서  
도루 찾아야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전물학교 학생으로서 이 선생은 자기 동창생 중에서 조선 해방에 대한 선전을 강력히 권행하면서 조선 청년은 죽어도 일제와 싸워 조선을 해방하여<sup>야</sup>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청년들 중에는 앞으로 조선 사회 발전에 대한 두가지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생이 주장하는 방향보다 정반대적 경향인바 비경향에 속하는 청년들은 주로 대지주나 큰부자의 직속들인바 이들은 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졸업후 좋은 직위를 행하고 살림가정을 꾸리고 잘 살면 된다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이 선생이 주장하는 경향은 전체 조선을 일제에게서 해방하고 완전한 조선 독립을 찾는 길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서도 또 두가지 길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중국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와 협력하여 투쟁하는 길과 다른 하나는 중국에 가되 임시정부와 협력한 이 조선인 해방투쟁단체들을 조직하여 가지고 직접 일제군과 싸워 그를 타도하고 조선영토에서 일제를 철저히 몰아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이 선생은 아직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철저한 민족주의자로서 일제를 자기눈에 보듯 하니라도 저 입버하였다. 이렇게 자기 동창들 중에서 반일선전을 강화하여 조국해방에 대한 정신으로 청년 군중들을 지도한 결과 이 선생의 위신은 제고 되고, 되었으며 동창생들 중에서 이상조 선생을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청년학생들의 동향을 일초 일각도 정치한 바 없이 살피고 있던 일제 헌병대는 이 선생을 1932년에 체포하여 투옥하였다. 일년 남다 감옥에 갇히며 많은 이 선생은 갖은 고문과 노를 맞으면서 심문당한후 일년이 지나자 석방되었으나, 그 석방이 가점적이어서 어디로 가든지 계속 감시를 받게 되었고



③

이런 조건하에서 겨우 권문학교 졸업시험을 주고, 몇몇 충실한 동지들과 작파를 붙여가지고 현병들의 눈을 보기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항문에서, 또 고향도시들에서 부모들의 덕행에 호의호식하던 리선생은 북잡고 남루하시던 어머니에게만 실초의 이야기를 끌고와서 약간의 돈양을 어머니에게서 얻어가지고 중국 땅 안국에 들어서니 산천이 다 조선의 그것보다 검어 짝 짝하게 보이고 만나보는 사람들도 조선의 사람들보다 해맑지 못하고 겁어보여서 경동리고 앞붙여 살고싶은<sup>은</sup> 어디하나 만나볼수도 없었으나 다른 품고온 포구가 모든 부정수입으로 버늘어 살려 사업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눈물노 삼키면서 갈어는 몇 고향 친구들과 함께 "식물것을 먹지 못하고 입은것을 입지 못하면서" 다만 "조국"의 글자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도 난관을 극복하고 조국을 해방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다.

별쳐 1934년 - 1938년 이시기에는 즉 이상조선생이 안국에 도착했을시에는 벌써 침략자들이 안국에 완전히 발을 붙이고 점차적으로 중국의 중앙성들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고 있을때였다. 중국 땅에 도착한지 그리 오래지 않은으나 리선생은 중국에 와서 살고있는 고려 농민들의 생활을 잘 연구하였으나, 특히는 젊은 조선 청년들의 동향을 잘 알고 있었기로서 그들의 힘을 조선해방투쟁에 리용할데 대하여 많이 생각하였다. 중국에 들어오자 리선생은 점차적으로 조선공산당 력사와 안국주의를 대강이나마 연구하게 되었으며, 어전 민족주의 사상에서 점차적으로 불타게 되었다. 그것은 왜냐하면 리선생이 생각할바에 의하면, 조선을 해방하자면 일제와 싸워 이길수없는 무장력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조선 민족주의자



(4)

들이 상해에 망명정부를 조직하며 놓고 김구 선생을 비롯하여 많은 민족 부르주아 유력한 간부들이 조선 해방에 대하여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에게는 돈도, 무장도, 군대도 없어 일제의 강력한 힘으로 물리칠수 없는 능력이 없는것을 확연히 보아서 그들과 같이 어느 강국 대총령이 조국을 해방하여 주리라 믿는다는것은 하늘에서 별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젊은 이상조 선생은 청년 연대들중에서 항일국의 사상을 전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조선 해방은 중국인민 해방과 꼭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는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의 공동적 원수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면서 손에 무기를 잡고 중국에 세력을 퍼뜨리고있는 일본 병력을 중국인들과 힘을 합쳐 가파르고 빠른 역습을 할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영토에서 자기세력을 확대 강화하면서 일제는 중국의 중앙부까지 자기 세력을 넓히려는 일제의 발악에 대처하는 어떠한 조직적 단체를 조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조 선생은 1937년 초에 "조선 청년 선봉대"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조선 청년들의 여러가지 작은 단체들을 그 주위에 묶으려나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서 1937년 중순에 벌써 중국 항저우 시에서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서 조선청년들의 단체들은 유일한 "조선청년 선봉대"에 연결되게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이상조 선생은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연계를 하게 직접적 책임자가 되면서 군사 정치적 간부가 되었다. 1940년에 이상조 선생은 제1차대 정치 책임자로 임명 되었으며 이때부터 군사 전술을 제로 삼고 이 연구하게 되었다.

⑤

이상조 선생이 조직하고 그 당해의 지도하여 1942년  
많은 조선 청년 단체들은 차츰 "조선 독립동맹"에 연합하여  
유일한 단체로 결속되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결집  
하여 1942년 봄에 그의 지휘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중국과 중앙 지구들에 조선인 단체들이 유일적 단체로 연결  
된 후 중국 중앙 위원회와 독립동맹 중앙은 전 중국에 산포  
되어 있는 조선인 모든 단체들을 독립동맹에 결속시키며  
무장 부대들도 유일한 체계에 연합하였다.

중국의 중앙 지역에서 절대 다수의 정치 망명자들과 청년  
유학자들을 조선 독립동맹 체계에 연합한 후 이상조 선생은  
독립동맹의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만주를 가게 되었으나 이  
는 중앙 지역에 비하여 정치 선전 사업이나 군사적 행동이 많  
아졌다. 왜냐하면 이리에서 벌써 일제가 이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주 지방에서는 이상조 선생의  
활동이 지하 공작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농민 대중과 노동  
자들과 지 친한하여 자기 정치 사업의 대상으로 되었기 때  
문에 그 활동 범위가 아주 광범하게 되었다. 결과에 수많은  
대중이 조국 해방 투쟁 대열에 나서게 되었으며, 독립동맹의  
사상 정치적 영향은 만주의 조선인들에게 완전히 행동 무장  
으로 되었다.

1942년 12월 중순에 이상조 선생은 독립동맹  
중앙의 결집에 의하여 조선에 파견되어 주로 남한  
에서 공작하면서 지식층 인사들에게 반일적 사상과  
조국 해방에 대한 사상을 독립동맹의 강령에 의하여 충  
족 식히면서 대중들의 정치 군사 행동도 감시하였다.  
일제는 만주에서 광동군을 확대 강화하여 만주 일대에



행동하고 있는 전체 빨간색 부대들을 완전히 황산  
하기 위하여 대대적 호별 작전을 진행하였다. 이 때에  
부분적 빨간색 부대들은 광동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소련으로 망명 하였던 것이다. 그 외에 바로 김일성, 최용건 부대  
들이었다. 일제는 이런 정책으로 훗날로 만주를 침략  
하는 한편 원동지역의 소련 침략을 준비하여 당시 혼란에  
봉착한 히틀러 독일 강점자들에게 항조를 권하였던 것이다.

1944년 중순에 이상조 선생은 상북지시에 의하여 다시  
중국에 돌아와 만주지역에서 조선 청년들이 전후부대들을  
연결하여 각 지역별로 훈련을 진행케 하였다. 차츰 이 전후  
부대도 독립동맹의 지도하에 제3지대로 되었던 바 그 후  
지대장으로 이상조 선생이 임명되었다. 이 부대는 소련  
에 의하여 광동군이 독항한다 하여도 장제석 국인당 군대  
와 전쟁을 계속하였다.

1945년에 소련군대의 결정적 타격에 의하여 일제가  
완전히 패망하고 만주와 북한이 해방된 이후 1946년 1월  
에 이상조 선생은 전국에서 추행하던 조선독립동맹  
과 더불어 전체 전후부대들이 북한에 일복합과 함께 북한  
들어 오게 되었다.

북한에 도착한 이상조 선생은 당사업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초시기에는 당중앙 조직부 부부장 최후 당중앙 간부부장으로  
1950년 까지 일하였다. 1950년 초에 이 선생은 다시  
인민군 간부로 조동되었던 바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사  
임을 전담한 부참모장으로 추대되었다. 이때는 벌써 북한  
이 동족상잔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누구보다 군인으로서, 또  
일라란의 정찰의 임무를 해방전 남한에서 수행한 이상조

선생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 아무 일도 없었다. 남침을 계획한 김일성이 총참모부에 유력한 남한간부를 초대하여 안동고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공상하던 남한의 3국일대 "해방"은 완전히 무어지고 1951년 중엽부터는 완전히 전지-방어전으로 넘어가자 유엔이 결렬에 의한 조선전쟁 평화단판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정전단판회의 북한측 대표로는 이상조 선생이 임명되었다. 조선인민군의 원년공화국 정령에 의하여 중장이 된 이상조 선생은 유엔군측 대표를 상대하여 두 나라 대표 즉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대표하여 분쟁하였다. 이 개성 정전단판회의에서 이상조 선생은 조선전쟁이 원사추리를 리용하는 전쟁으로 하지 않기 위하여 적측의 각 가지 책들을 폭로하면서 최대의 외교가 실력을 발휘하였다.

1953년 4월 27일에 정전은 드디어 조인 되었으나 미국측이 요구하던 조건에서가 아니라 즉 인민군측이 주장하던 조건-정전을 조인하는 당시에 양측 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선을 양측 군대의 분계선으로 인정한다-로 조인하였다. 유엔군측은 정전단판 조인 '앞의' 막 순간까지도 38선을 분계선으로 하자고 하였다. 그 조인은 '전적' 상으로 보아서 이익본 것이 없으나 그 후지의 비옥함으로 보아 차폐가 없기때문에, 한국사람들은 '이방'과도 도토리밥 바꾸었다고 하였다.

정전이 조인된 다음 이상조 선생은 뒤이어 조선인민군의 공화국 특명정권대사로 소련수도 모스크바에 전근되게 되었다.

이상조 선생은 모스크바에 전근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였다. 그것은 특명정권대사 직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는 세계적으로 모든 과학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었기





리상조 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특명정권 대사 신임장을 소련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크.예. 쿠로실로브에게  
증정하는 장면.

때 뿐이었다. 그에 따라 이상조 선생은 모스크바에서 특별  
정권대사로 일하면서 북한으로 불어 모스크바 육군대학에  
파견되어 하여 모든 학생들과 동침하여 공부하였다 물론  
전적으로 공부할 수 없기에 밤시간을 많이 이용하여 결석된  
강의 등을 보충하여서 많은 서적들을 얻게 되었다. 선생은  
이렇게하여 소련군 육군대학을 2년만에 자격검정시험으로 졸업  
하였다. 이상조 선생은 대성공을 달성하여 대단히 기뻐하였다.  
다음으로 모스크바 코모소프의 국립종합대학 철학부를 역시 자격  
검정시험 방법으로 통과해보겠다고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1956년 중반이었던바, 조국에서 점차적으로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전세위원의 "아버지로"가칭한 김일성  
이는 당과 국가의 지도자로서 도저히 할수없는 일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김일성이는 중국에서 활동할 때에  
는 한개복대 지휘관으로 있던사람이 필리피 한양의 악란한  
시기에는 소련에 월경하여 평안에 있다가 조선이 다 해방  
된 뒤에야 소련의 당국에 평양에 와서 왕좌에 앉아가  
지고 양관을 치는것이 도저히 참을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독립동맹 간부들이 사상검토운동이 북한에서 시작되자 첫피  
해자가 되었다 특히 이상조 선생은 자가와 같이 중국에서  
같이 고생을 다하면서만 다만 조국의 해방만 염원하던  
동향인 리익선, 이상조 선생이 5지대장일시 리익선  
씨는 5지대장으로 지내시던 그이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며 '맞아죽었다는'소문을 들은후 더 참을수없게 되었다.

이상조씨는 모스크바에서 현 '열일한' 잠을이루지 못한결  
결심하고 김일성에게서 결정적인 편지를 써서 보내었다.  
(이 자서전의 마지막 끝에 이상조 선생의 편지들이 첨가되었다)



9.

편지에 김일성의 개인용배 종파적 개인독재 사상을 아낌없이 비판하고 그가 전민족적 눈원에, 막스레닌주의 원칙에 변절하였다는 것을 똑똑히 지적하였었다. 김일성의 반인민적, 반혁명적 행동을 낱낱히 분석하고 진실한 막스-레닌적 편지에너 결론을 짓은 길다란 편지는 모스크바 출장중에 있던 박희환을 통하여 김일성에게 전달되었다.

자기의 범죄적 행사가 박희환에 노출된 전인적 "아버지" 김일성은 분이 상투 밑까지 치밀었으나 그러나 평양에서 열리던 열린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붙잡아 볼 수 없었다. 편지 내용에서 가장 분한 것은 자기가 모든 위법적 행위를 비밀리에서 감행하였는데 그것을 백일하에 노출시킨 것이다. 그것은 산딸린을 제일 무서워하던 것이 그가 죽은지 3개월이 좀 넘어서 허가이를 암살하고, 제일 위신 있게 계시던 여전 조선공산당 지도자 박헌영씨를 위수로 하여 전체 남노당 지도자들을 일제와 미국 스파이 감투를 씌워 검거 후 총살하는 등 반인민적 정책이었다. 김일성은 중국에서 나온 조선 독립동맹 간부들을 모조리 숙청 처단하였던 것이다. 김일성은 어떻게 하려면 리상조 선생을 조선에 불러다가 처단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자기 동지들에게 완전히 변절하고 그들을 김일성이와 같이 협력하여 숙청 처단한 두 명 한 명 전자며 반소정책의 주모자 김항만에게 위임을 주어 똑같은 이 때문에 출장중에 이상조 선생께 알릴 처럼 묘사하려 행동하였으나 이 선생은 그 내막을 벌써 잘 알고 있었다. 이상조 선생께 찾아와서 외국 출장 중 돌아가는 길에 이 선생께 잠깐 멈추었으나 노엽게 생각지 말고 조선에 나가서 수상님께 들이맞이 잘 알 놈드리면 모든 일은 다 대사

10,

필이라고 하였다.

이상조 선생은 김창만의 거짓말을 사람의 말로 인정하지 않고 아주 엄숙한 어조로써 먼저 김창만의 동지들에 대한 변절을 낫 낫시 폭로한다음 그가 김일성에게서 배주되어 또 나잡으러 어디까지 찾아왔는가 하니까, 거기 지금 김일성의 줄도-복무역할을 하는것이 아주 비열한 존재라고 결론 짓고, 혼자 도라가 너의 상전에게 전 하되 - 이상조는 다시 조선에 나가지 아니하니까,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변절한 김일성에게는 다시 더 복무하지 아니하여 북한의 국적을 거절하니까, 특령 정권 대사의 직무도 거절한다고 아뢰라고 하였다. 김창만씨는 다시 한번 더라고 말하려 하였으나 이상조 선생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자리를 일었다.

이상조 선생의 정당한 태도는 조선원주주의 공화국 위신에 큰다란 손실을 주었으며, 사회주의 진영 사퇴에 있어서 큰 양심<sup>이</sup>의 죄였다. 이 이후 소련에 와서 유학하던 많은 대학생들이 조선의 국적을 거절하고 북한에 돌아가지 않았으며, 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가서 공부하던 대학생들도 부분적으로 국적을 거절하였다. 많은 대학생들은 북한의 한심한 개인 숭배와 독재 정책에 대하여 똑똑히 알면서도 부로 친척들의 처지를 염려하여 말없이 북한에 돌아가기는 하였으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공부한 대학생들은 전복, 자유주의, 관료주의, 차대주의로 모멸되었다고 사상검토에 걸쳐 정배사리로 일생을 뺏았으며, 심지어 어떤 대학생들은 러시아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귀국한후 본인은 철직 유행자로 보냈으며 대리인 갔던 러시아



11.

녀자들은 수년동안 큰 고생된 끝에 러시아로 도주 추방  
되고 <sup>알았다</sup> 반소 거듭 김창만이는 러시아 여성들에게  
<sup>조선 대학생들에게 대하여</sup> 장가든 조선 로동당 대회에서 공공연하게 비판하면서  
말하기를 - "전통이 소련처럼 코다란 그런 녀성들이  
무엇이 좋다고 조선땅에 가지 대리고 왔는가?"고  
하엿다, 그러도 로동당의 선전 선동부장이란 사람이 이런  
민간 배태주의 사상으로 말하고 있었으니 그 당 노선이  
바르다고 말할 수가 없을것인가? 이렇게 사회주의 나라들에  
유학갔다가 귀국한 절대다수 대학 졸업생들은 그 들어 뒤  
형지에 가서야 자기의 잘못된 결심을 후회하였다.

이상조 선생은 김창만이 실한 인터뷰에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국적을 거절한다는 자기의 결의를 알로만 전환것이  
아니라 정식 서면으로 전하였다. 이렇게 냉대의 결의를  
받아 준 김창만이는 고향에 돌아가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로동당 중앙위원회 잡지 "근로자"에는 쓰기를 - "로동당원  
이상조 의 자기 비판" - 의란標題하에 코다란 위조논문  
을 난립하였다.

이러한 대결이 었은다음 1957년 7월에 이상조  
선생을 청원을 써서 소련 최고소베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기하였던바, 그 청원의 내용은 자기를 파견한 고  
향의 정형과 자기의 결심을 기록하였었다 그 결심에  
따라 고향에 돌아갈수없으니 정치적 은신처를 받았으며  
장차 소련공민권을 요구하였다. 소련 최고소베는 상임위원회  
는 이상조 선생의 청원서를 접수하고 그의 요구를 해결하여  
선생을 백로시아 공화국 민스크 고금당학교 연구원에 파견하  
여섰다.

12.

선생의 요구에 따라 철학을 깊이 연구할 목적으로 린스크  
고급대학교 연구원에 도착한 이상조 선생은 정신상 괴  
로움은 많았으나 철학에 대한 연구는 깊어지며, 2년 후에  
그 연구원을 마감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며 학식의  
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 후 리선생은 린스크 과학원 내  
철학부 과학 연구원으로 다년간 근무하였다. 리상조 선생은  
과학 연구원으로 재직시 많은 학술 논문과 책들을 썼으며  
그중에서도 중국지대에서의 한인들의 혁명 투쟁 투쟁사, 특  
히 연안지대에서 독립운동의 조선 해방을 위한 투쟁사 기록  
은 많은 과학자들이 기초적 문헌으로 되었다. 이 외에 이선  
생은 벌써 청년시대로 넘어 조선의 아름다운 산천 풍경,  
저해롭고 조선인들이 참조적 노력을 분사한 시조와 중국  
의 넓은 광야에서 어렵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불굴의 투쟁을 적은 시조들도 적지 않다.

1992년 1월 중순에 이전에 조선에서 조선 민족  
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설하였으며, 노동당을 주체로  
인민군대도 만들고, 2월 8일을 그의 한생일로 기념  
하였고, 북한이 야기한 동족 상잔에도 참가 하였던  
여러 간부들이 모스크바에 불려서 회의를 열고 구국  
전선을 조직할시 회의참가자들은 일치가 될로 박갑동  
선생을 상임 의장으로 선출하고 이상조 선생과 김강  
선생을 부의장으로 추대하였었다. 그 후 이상조 선생은 구국  
전선 각 대회들과 확대 위원회들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  
고 있었으며, 이 선생은 벌써 1989년에 "남북한이 통일"  
문제로 열린 서울 과학 학술 회의에 참가하여 깊은 이론  
적 보고를 진술하여 참가자들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



리상조 선생은 그 후에도 수확에 결여 남한을 방문<sup>13</sup>하  
 였던바 유치는 과학기술적 학술회에 참가차로 가셨다고  
 한번은 윤전희 고향과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가셨다고  
 서울에 단떠온 여러선생들의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에  
 는 리선생의 절친누이동생이 아담한 가정을 이루고 자기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은 어느  
 직장에서 책임적 간부를 계신다고 하며, 고향땅에는 아버  
 지가 남겨놓고 돌아가신 적으만한 농경지에 허전도 있는  
 한편 훌륭한 가옥도 몇채 있어 리상조 선생은 생각만  
 있으면 거기에 가서어서 유필한 유산상속인으로써 자기  
 노년기를 아무런 근심도 없이 지낼수 있다고들 하시었다.

그러나 리상조 선생은 일제놈들의 압제때문에 허려서  
 더구나 고향에는 다시도라가려 하시지 않고, 북한이 민족  
 와족친의 길을 밝히 하로속히 해방되면 자기가 일생 독  
 읍을 내걸고 투쟁한 그 목격지, 수많은 자기 친구들이 세제  
 에서도 혹독한 독재와 김일성에게 희생되고 억울하게 눈물  
 감은 그곳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구국전선의  
 용사의 가선가를 설치하여 들어설것을 굳게 결심하시면서  
 나날을 살아오시었다.

리상조 선생은 지난간 3월 4일에 자기 한생 80  
 주년을 하슈켄에서 성대히 맞이하였다. 대대하게 금년  
 이자 리선생의 복인 언니의 한생 70주년이 되어서  
 두분은 한상을 차려놓고 같이 진갑을 되리고 약속하고 아이  
 들과 친척들이 절을 받으려는 그 좌석을 아주 다채롭게 하  
 였다. 리상조 선생의 진갑 연회를 축하하기 위하여서는  
 한국 대사관을 대표하여 리지하 원동삼사관이 오시고,  
 중국 대사관을 대표하여 농영사를 위수하여 51명이나 내로  
 하였는데, 조국통일 만국 구국전선 우르헨공화국 지구의 장

학봉의장 어화 5명이 참가하였는데, 각 직장 사회 단체 대표들도 참가하시었다. 진갑 연회는 구국전선 지구의장으로 부터 리상조 선생의 양력 소개가 있는 다음 조선 풍속 대로 자식들이 술부서 물리고 절하는 절화가 있고, 각 대사관과 사회 단체 직장 대표들의 축하 연설들이 있는 한편 연설을한 대표들은 각종 기념품들도 증정하였었다. 연설자들 중에는 공화국 고려인 중앙 문화 협회 위원장도 있었다.

축하 연회에 불연 열풍은 기립하여 열연선대세에서 민족통일 구국전선 상임의장의 축하전문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리상조 선생의 만수 무강을 위하여 건배를 하였다.

80주년 축하 연회는 아주 재미있고 활기가 넘치는 랑의 정 음악속에서 노래소리로 끝날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리상조 선생은 80주년을 된 다음 불과 3개월이 지나 심장마비가 생기며, 건강이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항상 공화국 제일 국방성 진공소의 관할 하에 계시던 리선생은 지난 4월 5일에 공화국 국방성 제 1 중앙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 총병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각이한 의학박사들이 매일같이 진단하는 한편 세상에서 풍다는 외국약제들은 '다들 무늬만 있어' 보아도 효력이 없이 계속 산소 흡입기로 호흡하시다가 불 불 하게로 리상조 선생은 1996년 8월 6일, 오전 10시에 영원히 잠들고 말았다.

리상조 선생의 장례식은 1996년 8월 8일에 다뉴겐호 시 국립 공동묘지에서 진행되었다. 장례식은 구국전선 상임의장의 지시대로 유로백 지구 구국전선 의장의 총 지휘하에서 진행되었다.



15.

리상조 선생의 영구와 능별하기 위하여는 다음번에  
주재 대한민국 대사 서경이씨가 일등서기관 리만영  
씨를 데리고 같이 오셔서 고인의 앞에서 기립하시곤 침묵으  
로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리상조 선생의 장례식을 위하여서는 우르백 공화  
국 국방상의 명령으로 특별 위장병 중대, 군악소대  
영구차, 비버트 오대, 화물차 2대 등으로 파견한 한편, 서군사령관  
부를 대동하여 위장 중대, 중앙 국방상 병원 원장등 군관들도 10  
여 명이 참가하였다.

그 리상조 선생의 영구 결례선 구국전선 지구의장은 리선생  
의 양력노제와 더불어 과거 조선해방을 위하여 조국을 떠나  
여수인 광국, 만주동지에서 전개한 불굴의 투쟁 역사를 간단히,  
또 해방후 조국에 돌아와서 전국사업에, 동족 상잔시에 선생이  
조국 땅에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성 평권당 판대기  
발휘한 전략적 의술에 대하여 낮 낮이 말한 다음 위장  
중대의 세번 거포 연발 집중 발사한 것은 다름 전갈하고  
물론 군악소리대 비롯 리선생의 영구를 맞이한 다음  
위장병 중대의 열병 예절식이 있었다.

리상조 선생의 묘지에는 새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비석을 세워준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애국 열사 리상조 선생의 묘 :

항쟁 46년 3월 7일

사망 1996년 8월 6일.

보기 좋게 세워진 비석앞에서는 화환들에 감겨있는  
리선생의 영구를 화상하면서 자식들과, 친척들.

그리고 선생을 잘알았던 여러 지사들은 순차적으로

16.

눈물겨운 절물로 하시고 술잔도 북서 놓았다. 장례식도 끝났으나 붙어있던 자취들과 친척들은 집으로 가려 하지 않고 오래 동안 묘지 곁에 서고도 없었다.

장례식은 성대하였으나, 누구도 불깃 없어 그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 그들이 각음복에서 리선생에 대한 생각은 오래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빠른 장례식도 끝난 그날 저녁에 때늦게 리상조 선생의 처가에 대한 소식을 받은 민족통일 국극전선 상임 의장 박갑중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애로사를 확산코 보내었다!

애로사.

분문을 그대로 활영하여 묘사하기바람

끝으로, 리상조 선생이 아직 모산교차에서 조선 민족극의 공화국 혁명 정권대사로 게설시 자신이 친히 집필하여 김일성에게, 조동당 중앙위원회, 조동당 중앙정위원회 참가하신 동지들에게 보낸 도련적 전문을 그대로 발표한다.



'96-08-08 15:20

セイコウショホウ

P.2/3

Gab Dong Paek  
CHAIRMANGang Jün Chung  
SECRETARY

朝鮮民主統一救國戦線  
National Salvation Front  
for Democratic Reunification of Korea

KOEIEN Bldg 132, 3-2-5 SHANAGAWA-DING  
CHIYODA-KU TOKYO, JAPAN  
TEL 03-3255-1887  
FAX 03-3255-0125

## 애도사

존경하는 이상조 의장 선생님!

자나 깨나 잊을수 없는 우리조국 조선의 혁명가  
이시며 애국자이신 이상조 동지!

세계에서조차 비할바 없는 독악한 역도 김일성 에  
반대하여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조국의 하루속한 해방을 위하여 분투노력하시던  
이상조 의장 선생님!

조금만 더 사시었다면 해방된 조국에 돌아가시며  
二천만 동포의 환호소리 만세소리를 들을수 있었는데  
그만 영광의 고별도 보시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전쟁범죄자 동족학살자  
김일성을 타도 못하고 도중에서 원한을 품고 목숨을  
잃은 애국자가 그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지옥으로 떨어졌는지 이미 만二년이 다되어도 그의  
자식 김정일은 二천만 북조선 동포의 광범한 반대를  
정권을 계승 못하고 있습니다

二년동안 모든 발악을 하여도 계승 못하였다는 것은



Gab Dong Jack  
CHAIRMAN

Sang Jin Chong  
SECRETARY

朝鮮民主統一救國戰線  
National Salvation Front  
for Democratic Reunification of Korea

KOSHIN B/D 462, 1-7-3 SARUBAKU-DHO  
CHIYODA-KU TOKYO, JAPAN  
TEL 03-3203-1861  
FAX 03-3733 9138

앞으로도 계속 영구히 계승 못하고 파쇼 김일성잔당  
정권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민주통일구국전선은 앞으로 1년 이내에  
평양에 개선입성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여 2천만  
동포를 구원할 것입니다. 국내 동포들과 같이 힘을 합하  
여 민주조국, 부유한 조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양에 개선입성할 때에는 반드시 선생님  
의 혼백을 모시고 가서 영세불망의 선생님의 비를  
세우겠습니다.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령훈이 극락에서 편히  
쉬시기를 축원하며 선생님과 리별하는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6년 8월 일

조선민주통일구국전선  
상임의장 박갑동  
일보 도교





1953년에 개성정전 담판회에서 활동하실시  
리 상 조 장 군.

13.

그 후 이상조 선생은 3 회에 걸쳐 남한에 다녀 오셨으며  
그 중 2 회는 역사 과학 기술적 협의회에 참가 차를 가셨다고  
한번은 윤진이 고향과 친숙 방문차로 가셨다고.

이상조 선생은 최근에 한 생 80 주년을 맞아 하였다.  
김세원을 만났고 실사여 있어 걸어오신 이상조 선  
생은 신경통으로 현재 식지를 잘 씹지 못하는 중환으로  
계신다.

다슈겐츠에서 이상조 선생의 복인 얻었다.

이제 아래에 이상조 선생이 김일성에게 전달한  
편지와 더불어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참  
가한 여러 동지들에게 쓴 편지를 그 대로 기록한다.

광복동.